

인력법 제정 촉구 11월 총력투쟁에 나서자

11월 21일 13:00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15:00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11월 10일 13:00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총력 투쟁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용익 전의원과 정진후 전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각각 발의하여 국회 계류 중인 상태이다.

최근까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통과 및 조문 협의를 위해 우리노조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국회 윤소하의원실, 정춘숙의원실, 대한간호협회가 참가하는 실무논의 및 조문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9월 법안명칭을 최종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마무리하고 10월 11

일 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남은 것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 규정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포함 여부와 “보건의료인력원”으로 둘 것인지 “보건의료인력센터”로 둘 것인지이며 이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 노조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포함하고,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말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계획이

다.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우리노조, 직종협회에서 토론자로 참여 예정이다.

현재 예상되는 국회 일정을 보면 11월 11일부터 22일 사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 29일부터 30일 본회의가 진행된다. 여기서 통과가 안 될 경우 12월 6~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11월 21일 결의대회 및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국회 토론회와 직종협회와 의료기사총연합회 면담 등 활동을 전개한다.

의료원의 일방적 비효율적 시설팀 사무실 통폐합과 관련하여

시설팀 사무실 통폐합을 위한 입찰이 지난 10월 30일 오후 2시 의과대학에서 진행됐다.

우리지부는 부서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통폐합 진행에 대해 의료원에 항의 한 바 있으며 이에 의료원은 ‘인력감축 및 업무통폐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사무실 통폐합도 자연스럽게 계기하는 결과를 기대했으나 3개 병원 시설팀장들의 주장으로 결국 재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업무통합 때문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말바꾸고,

부서원들이 찬성해서 진행한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무실 통폐합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지부는 3개 병원 경영관리실장을 만나 계획 철회를 요구했으나 결국 자신들의 계획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지부는 병원의 사무실 통폐합 의도가 업무 통합 → 인력감축 → 시설안전 위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 아래 이를 막아내기 위한 법적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 모든 계획을 주도하고 이끈 당사자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반드시 올해 안에 보건의료인력법을 생취하기 위해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편지

11월 투쟁 관련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새 거리에 붉은 단풍이 날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결실의 계절, 우리들의 삶도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총파업을 전개하며 “적폐청산, 노동할 권리, 사회대개혁 총파업대회”를 개최합니다. 11월 9일에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벌이는 연가 투쟁, 11월 10일에는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와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이어집니다.

민주노총 11월 총파업은 촛불항쟁의 최우선 과제였던 적폐청산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와 사회안전망위원회를 통해 노동법 개정과 국민연금 개혁 등 핵심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등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투쟁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 저지 ▲노동법개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법은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력법은 정부가 5년마다 보건의료기관의 모든 직종의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력 종합계획을 세우는 법입니다. 2012년 처음 발의된 보건의료인력법은 인력부족으로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온 보건의료노동자의 큰 희망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우리노조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실, 직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실무논의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안 제정’을 목표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국회 토론회와 직종협회와 의료기사총연합회 면담 등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올해야말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의 적기입니다.

아울러 11월 21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노동특례 폐기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니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OECD 국가들의 병원에 비해 1/2밖에 되지 않는 국내 병원인력, 이대로는 안됩니다. 우리의 결의와 힘으로 20대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우리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행동하고 국민이 지지하면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일터를 바꿔나가는 상반기 4OUT 운동에 이은 11월 투쟁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절실한 외침이며, 안전한 병원, 존중받는 일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입니다. 조합원들이 함께 하는 현장에 힘이 있고,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11월 투쟁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